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과 다문화교육 방향 모색

전수현
(동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입국 현황
 - 2.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
 - 2.3 선행연구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 3.1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 3.2 청소년 인터뷰 세부내용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4.1 인터뷰 분석결과
 - 4.2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5. 결론

<Abstract>

Chun Su Hyun. 2018. 1. 14. **Analysi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defectors and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79-203.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September 2017, the total number of defectors is 31,093. In order for South Korea to overcome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prepare and achieve unified Korea in the near future, it is very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the re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uffering due to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at they feel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will be reflected and helped in the multicultural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 which is rapidly progress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increasing and is being influxed into South Korean society by various age groups such as age and education. As a result, education and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e available, but no education is provided at the educational sites related to their understanding and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enough that the school district grasps the number of students at each school every semester. In fact, most young people in middle and high school do not even know the term "defectors", and they do not know what reason and process they come to Korea to settle and live in. Most of them do not know about the reality of defectors.

In this study, we interviewed 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city to find out how young people think about defectors, what kind of educational and understanding efforts they have made, It aims to fi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students in society.(Dong-A Univer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Educational impli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이 넘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 학문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교육이 크게 보면 다문화 정책과 교육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2017년 9월 통일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1,093명으로 파악된다. 한국이 진정한 남북한의 갈등을 넘어서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차별, 편견으로 인한 고통의 이해와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연구와 교육에도 반영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연령과 학력 등 다양한 계층에서 남한사회로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들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원 파악 정도만 매학기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조차 잘 모르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과 반감과 편견이 크며, 어른에 비해 개방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은 부

정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더 큰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현실을 놓고 보면 더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연구는 부족했고, 한국의 다문화교육 연구에서조차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이 크며,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연구와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양상을 확인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부산시내 중·고등학생 8명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을 찾고, 다문화 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와 더불어 청소년들과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어울려야 할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까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자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정해진 절차와 교육을 받은 후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의미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자”¹⁾를 말한다. 유사한

개념이지만 “재북화교²⁾, 북한적 중국동포³⁾,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⁴⁾는 탈북민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통일부 2017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대체했고, 2004년 ‘새터민’을 공식 용어로 선정했다. 이후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을⁵⁾ 사용하고 권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으로 탈북하는 숫자가 급증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말부터 매년 1,000명 가까이 넘게 국내로 들어왔고, 2001년도부터는 매년 1,000명을 넘었다. <표2>는 2011년 이후 입국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1년에는 2,706명이 입국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단속 강화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급감하였다. 2017년 9월 통일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1,093명으로 파악된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2)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 보유

3) 북한 국적을 보유하나 중국 거주

4) 북한주민의 자녀로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5) 2017년3월21일 일부개정해서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표1 1998년~2009년 입국인원>(2017년 9월말 기준 현황)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 비율 (%)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표2 2010년~2017년 입국인원>(2017년 9월말 기준 현황)

구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9	합계
남(명)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명)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명)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75	70	72	76	78	80	79	85	71

2.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증가이다. 1998년 이전까지 여성의 비율은 12% 뿐이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남성보다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남자였고 가족이 아닌 단독인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거나 가족 중 한명이 먼저 한국에 와서 정착한 후에 다른 가족들이 탈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연령대별 입국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6월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9세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탈북시 이동이 용이하고 정보력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능력이 높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표3 통일부 연령대별 입국 현황>(2017년 9월말 기준)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남	633	1592	2461	2058	1315	504	328	8,891
여	625	1961	6308	6873	3995	1210	936	21,908
합계 (명)	1258	3553	8769	8931	5310	1714	1264	30,799

세 번째는 학력별 현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대부분이고, 직업별로는 노동자나 무직이 전체의 86%이다. 이에 반해 전문직 종사자는 2.2% 불과하다.

<표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통일부 2017년 9월말 기준)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 원	인민 학교	중학 교	전문 대	대학 이상	무학	기 타	계
남	414	135	757	5120	767	1017	353	28	8,891
여	398	194	1319	16134	2189	1112	491	71	21,908
합계 (명)	812	329	2076	21554	2956	2129	844	99	30,799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루트는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인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다른 형태로는 해외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중국으로 정상 방문하여 제3국으로 입국을 하는 형태이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얼어

도강하기 쉬운 가을과 겨울에 많이 탈북하고, 이에 반해 여름은 홍수나 장마로 국경을 넘기가 어렵다. 그러나 2009년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국경 수비지역에 철조망과 감시탑 설치가 강화되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국경경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국경지역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으로 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3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자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문제를 논하거나 탈북 이후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반해서 내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결과를 내포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내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그들과 접촉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동정심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서를 갖고 있다(김영수 1998; 정기선 1999; 양계민·정진경 2005). 업무상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에 있는 경우 보호경찰관, 신변보호담당관 등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양계민·정진경 2005), 반면 대안학교 교사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계민·정진경 2005).

특정한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것으로는 권수현(2011), 손애리·이내영

(2012)이 있다. 이명진(2010)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7년 한국 사회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조사자료를 근거로 다문화시대를 맞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다루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주민에 포함시켰다. 박명규(2016)는 2015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 내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면, 이명진(2010)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력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권수현(2011)과 손애리, 이내영(2012)은 종속변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일 때와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일 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가 달라졌다. 권수현(2011)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 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민족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애리와 이내영(2012)은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한민족 동포로서의 인식보다는 한국에 온 이주민으로서 인식할 때 더 친근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이탈주민 대량수용에 부정적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량수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규(2016)는 북한이탈주민과 직간접적인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다. 그리고 북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력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반면,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3.1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3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회교육과 세계시민으로서 가치와 태도에 대해 배우고 익혔을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학습을 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표현력이나 균형 있는 시각과 이해력 갖춘 중·고등학생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 8명의 참가자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8명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든 참여자들의 반응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친밀하고 익숙한 면접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또래집단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고 같은 지역에(부산 동래구) 비슷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로 본 연구자가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단한 단답형 질문⁶⁾과 개방형 질문을 적절히 혼용하여 참여자들의

6) 단답형 질문 사항은 정연중(2002)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과 신미녀(2010)의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호 설문지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한이탈주민을 만난적이 있나? ②만날 필요성 여부는? ③탈북 동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인터뷰 전체 시간은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표5 청소년 인터뷰 응답자 프로파일>

이름	나이	성별	학년	성적수준
김지안	만 14세	남	부산소재 중학교 2학년	중상
손예진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하
손주성	만 14세	남	부산소재 중학교 2학년	하
이정섭	만 16세	남	부산소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하
이현진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상
이연서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중
최정은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상
최다연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중

3.2 청소년 인터뷰 세부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범주를 크게 3가지 주제로 정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 한민족 동질감 등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았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도, 적응에 어려운 점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과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④남한생활의 만족도는 몇점? ⑤남한사회에 적응하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까? ⑥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가장 힘든일은? ⑦일반적으로 남한사람들의 태도는? ⑧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교제는? ⑨대학특례입학제도, 장학금의무할당제, 의무고용제 등에 대해서는? ⑩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정책 인지여부

세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와 동질감, 관심 등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나오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나온 것도 대단하고 용기가 대단하고. 남한이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같은민족이었는데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해요. 한민족인데 떨어진거잖아요. 빨리 통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 시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손주성 중2)

“북한이탈주민은 그냥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남한에서 사는게 부족한 것도 많을텐데 도와주면서 부족한거 채워주면 좋겠어요. 늘어나는 탈북민이 우리나라 성장하는 계기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정섭 고1)

“약간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동정이나 편견은 절대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한민족으로 대해야 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색안경 끼지 않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데 거의 진짜 잘 몰라요.” (이현진 고2)

“북한이탈주민들 중엔 혼자 넘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들 두고 오려면 진짜. 이민갔는데 혼자 가는거랑 마찬가지로.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학습하게 해주고.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진짜 거의 모를걸요. 저도 고2때 탈북자 처음 알았으니까요. 친해질 수 있는게 있으면 좋을 듯해요. 진짜 강연 오신 분 처음 봤을 때 너무 우리랑 다 똑같아서 별차이는 못느끼고. 다른 애들도 다 놀랐을걸요. 진짜 말안하면 북한에서 온 줄 몰랐을 걸요.” (최다연 고2)

“북한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힘든거 아는데, 진짜 자기나라에서 남한으로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방송매체에서도 북한 안 좋게 말하고, 북한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오냐고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각자 조금씩 도와주

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겪고 오는 거 모르고 저 사람은 왜 내려왔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강연을 통해서 듣고 아는데 좀 모르는 학생들은 안 좋게 생각하니까. 여튼 편견 갖지 말자. 저도 그랬으니까요.” (최정은 고2)

8명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어 본적이 없었다. 단지 4명만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사 초청으로 강당에서 강연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만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만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나보고 싶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오는 가벼운 관심이지 더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과는 거리감이 다소 있다. 최정은 학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섭고 오히려 외국인이 더 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친구는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친구는 괜찮다는 다소 모순된 대답을 했다. 한편 학교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에 대한 강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 정말 놀라웠으며 그런 강연과 교육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도, 적응에 어려운 점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해서, 남한생활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북한이 살기 어려워서 남한에 왔을거잖아요. 두고 온 가족들한테 미안할 것 같고, 남한생활은 한 70점 정도될거 같아요. 적응하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릴거 같고요. 말투가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 (김지안 중2)

“북한은 공산주의고 힘들어서 탈북했을 거잖아요. 남한이 그래도 북한 보다는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먹고사는 것부터 힘들 것 같아요. 탈북자 센터같은게 있어요 혹시? 별로 안많은거 같은데...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거 같아요.” (손예진 고2)

“힘들어서 내려왔을거예요. 가뉘나서? 적응하는데 힘든점은.. 글썽요 잘모르겠어요. 사람들 시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손주성 중2)

“너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시설도 안 좋고 해서 내려왔을거예요. 남한생활 만족도는 60점 정도?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사용하는 것도요. 스마트폰 같은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연서 고2)

“아무래도 북한에 그런 약간 체제같은게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 온거 같아요. 혼자오는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생각할 수 도 있는데 탈북과정에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테리고 가는게 더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험하잖아요. 진짜 죽을 수 도 있는데. 남한생활에 대해서 좋아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남한사회 분위기 같은거 문화같은게 다르니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현진 고2)

“매체 발달로 옛날이랑 다르게, 남한이 자유로워보여서 일자리도 있고 해서 온거 같아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생각보다 차이를 못느낄 것 같아요. 1년정도면 적응할걸요. 일자리 구할 때 탈북자 출신이라는거 안밝힐 것 같아요. 말도 차이나서 어려울듯 하고요.” (최다연 고2)

“북한에서 사는게 힘들니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남한이 좀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근데 남한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한 3.7정도 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선입견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힘들겠죠.” (최정은 고2)

“예전에 천안으로 학교에서 갔는데 그때 탈북자 강의들었어요. 남자였는데 45세라고 했어요. 그냥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남한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북한보다는 좋은데 기대보단 못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선 그런것도 안좋고, 일자리도 어렵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거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이정섭 고1)

학생들은 대부분 탈북의 동기를 경제적 이유, 체제에 대한 반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등으로 예상했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점으로 예상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편견과 대인관계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본인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을 갖고 있거나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인식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고 냉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너무 힘들어서 온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같은거 해줘야 해요. 민족이니까 보살펴야죠. 어린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교육지도도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북한아이들 10명 정도 의무적으로 10명요, 한 학교에서 같이 수업해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북한전용 일자리나 교육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일을 바라지는 않아요. 분리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도같은거를 많이 늘려서 북한이탈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연서 고2)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게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수업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잘 모르겠어요. 통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요. 김정은 죽으면 통일이 될 것도 같아요.” (김지안 중2)

“저는 솔직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손예진 고2)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수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3만 명이 넘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고,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한 명이 유일하게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어렵듯이 아는 정도였다. 기존 정착 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지적하는 점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나 주택 임대 등의 부작용과 오히려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과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⁷⁾과는 상반되는 생각을 청소년들은 갖고 있었다.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무지하다고 판단되는데 비하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1 인터뷰 분석결과

8명의 청소년들의 인터뷰가 부산 시내 전체 학생들의 생각이라 볼 수는 없지만, 8명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 의견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빈도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겨우 학교에서 특강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고작이었다.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

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2007년에는 59.1%가 동의했지만 2015년에는 50.6%로 낮아졌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007년 40.9%에서 2015년 49.9%로 높아졌다. (박명규 외 2016: 262쪽)

나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꼭 만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 하였고, 관심도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8명 모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왔을 것이라고 경제적 요인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가족과 헤어져 목숨 걸고 왔을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라며 대단하다는 표현을 언급하였다.

남한생활에 만족도를 예상하는 질문은 대체로 만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만족하진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응하는 평균 연한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5년 미만으로 생각했다.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대인관계나 사람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등을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색안경을 끼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냉담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학특례입학제도나 장학금제도, 의무고용제 같은 제도에 대한 의견은 예상외로 관대하고 적극적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배우의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더 많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명 전원이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 한명정도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정도였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들어 본적조차 없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한 인

터뷰를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아쉬운 점도 나타났다. 8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년이 아니라는 점은 정확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동일한 학년의 청소년들이거나 혹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를 인터뷰 대상으로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심층 인터뷰와 질적 연구를 통해 정확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와 앞선 선행 연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업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고, 이를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한 올바른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보다 오히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냉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탈북자라고 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냥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라고 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에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남한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가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4.2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에 맞추었던 정책의 초점

을 다문화 통합으로 나아가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와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편견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표출하느냐이다. 어느 정도의 편견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가 높아질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역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조○○⁸⁾를 50분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 한명의 이야기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였다.

“금방 왔을 때는 정착도우미 분들도 계시고 센터의 도움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교육기간이 끝나고 혼자 생활하면서 따갑고 불편한 시선을 느꼈어요. 택시를 타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보길래 강원도라고 거짓말 했어요. 북에서 온 걸 알게 되면 사실대로 말은 하지만 숨기고 싶었어요.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식당에 가서도 조용히 하라고 우리끼리 그래요. 시선이 불편하고 우리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조선족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조선족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중국이라 하는 게 더 이미지가 안 좋다고. 따가운 시선은 중국보다 북한이 낫지 않느냐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안 좋을까봐 이쁜 짓 하려고 가식적으로 억지로 노력하고 눈치도 보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게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는 정착하는데 제일 힘들었

8) 조○○는 1991년생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2016년 1월부터 부산에서 정착하여 현재 공장에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다.

던 점이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라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예상했던 점과 일치한다. 북한이탈주민도 다른 이주 외국인과 같이 다문화 통합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 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살던거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마음 아픈일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일은 못해요. 과거를 빨리 지우고 정작을 빨리해서 돈을 모으던 공부를 하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지, 엉뚱한 일에 안 휘말리게 잘해야 해요. 어린나이에 결혼부터 덜컥하는 것도 사실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두달 일해보고 힘들다고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도 봤거든요. 노력도 안하고 참 안타깝고 어린친구들은 무엇이든 도전해 보고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그만두더라고 일단 노력해야 해요.”

이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는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오히려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더 늘리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낮에는 센터에 갔다가 밤엔 일하고, 처음에 일안하면 생활비를 32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돈으로 생활이 힘들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힘들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공부한다고 일년만 해보자고 공부했었어요. 몸도 힘들고 돈도 필요하고, 돈 공부 둘다하기 힘들었어요. 5년안에 해야하는데. 진짜 죽을만큼 노력해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지금 오는 어린 친구들은 꼭 알았으면 해요. 한두달 하고 때려치지 말고.”

북한이탈주민 조○○는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려 공부를 시작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히 영어와 수학, 사회 과목 등에서 너무나 학업 능력 차이가 나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현재는 공장에 취직을 한 상태라고 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했지만 언젠가는 간 호대학이나 미용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다.

이상으로 종합해볼 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반다문화 정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반감과 편견,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는 한 단계 발전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만 대상으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정착 지원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고 초기 정착 자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 조〇〇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다.

“새터민 전용학교에서, 서울에 2곳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서 아는 이모 아들이 다니는데 공부하는 애들이 다 나이가 다르다고 해요. 혼합반이에요. 중졸 인정받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반 학생들하고 따로따로 학교다니는 건 아닌것 같아요. 그럼 계속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지내고, 거긴 작은 북한인거 같아요. 계속 소외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서 오전, 오후는 전용학교 가는게 좋을 듯해요. 아니면 주말에 간다거나. 따로 소외된 학교에 다니면 계속 소외될 듯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꼭 일반학교에 가능하면 다니는 방안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8명의 인터뷰 청소년들이 생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조〇〇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별로 없었다고 아래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하나원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생활하면서 남한사회의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원 이후 언어교육은 필요없다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다.

“하나원에서 발음교정, 맞춤법, 남북한 사용이 다른 단어 같은거 교육이 있어요. 도움이 되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책자도 줬어요. 그런데 생활속에서 배우는게 제일 빨라요. 하나원 마치고 교육은 따로 필요없을 것 같아요. 나이든 사람은 제3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 문화에 크게 차이를 느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잘 적응해요. 문화적 차이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린친구들은 제3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빨리 적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젊은 20살 전후에 혼자 온 경우는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도 크고 소외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 시선도 많이 신경쓰이고.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고 울기도 했어요.”

5. 결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과 다문화교육 방향 모색까지 생각해 보았다. 청소년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무지에서 오는 무관심, 무관심은 다시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한국에서 주역을 될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많이 논의되고 관심이 많은 분야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정착 지원에만 집중되고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주기적이고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다양한 탈북경로와 제각각 다른 동기로 남한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적응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최고의 인

재로 성장시키고, 앞으로 통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혹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또한 이미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한 어린세대의 북한이탈주민의 세대교체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한국에 적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학교에도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꼭 되고 싶어요. 한번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오는 무관심, 교육을 통해 배워 본적이 없어서 모르는 편견과 오해, 외국인과 다른 다문화이지만 오히려 외국인보다 멀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질감 등등 호기심은 있지만 무엇보다 충족되는 교육과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기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일반 학교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적응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교육은 미비하나 어느 정도는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담당 교사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지침은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통일과 연결해서 언급되거나 다문화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용어 정도만 언급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수현(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29쪽~153쪽.
- 김광웅(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선(2016).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문화적응 결정요인의 통합적 고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수(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10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25쪽~155쪽.
- 박명규(2016).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손애리·이내영(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5쪽~34쪽.
- 신미녀(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7쪽~112쪽.
- 안혜연·이금순(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통일연구원. 145쪽~171쪽.
- 양계민·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11권, 한국심리학회. 97쪽~115쪽.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0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279쪽~318쪽.
- 이금순 외 9인(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04-01>, 321쪽~327쪽.
- 이명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권 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63쪽~85쪽.

- 정기선(1999).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통일문제연구> 31권,
평화문제연구소. 173쪽~189쪽.
- 정연중(20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아·임순희·정진경(2007).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77쪽~289쪽.

필자 소개

성 명 : 전수현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전자우편 : sh.jun@daum.net

투고일: 2018. 1. 14 / 심사일: 2018. 2. 2 / 심사완료일: 2018. 2. 8
--